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주 목요일(10/25)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Hallelujah Night: 10월27일(토) 6pm 세광교회
- "Watch and Pray"  
Prayer for the Nations: South and North Korean, USA, and All Nations  
11월3일(토) 10am 세광교회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0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최병식 집사 (시 34:1-8)

이번 주 친교: 이영순 권사, 강승연 자매

다음 주 친교: 홍영순 집사, 이영희 권사

제18권 41호

2018년 10월 21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Acts) 20:17-38** ----- 이민영 목사  
 설교(Sermon)----- “나의 달려갈 길과”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438장 (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 (Psalm) 104:1-9, 24, 35----- 최경자 집사  
 찬양(Choir) ----- “은혜 아니면”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Acts) 20:17-38**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나의 달려갈 길과”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 435장 (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3:21-26; 12:1-2)**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권합니다. 심판의 두려움과 위협보다도, 보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어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의 자비와 능력을 아는 것을 회복하기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고후 5:14-21).

지난 주 말씀드린대로 복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신실함(미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자비는 우리가 믿어 의롭다 칭함을 얻고 심판을 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것을 믿어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탕자는 종 노릇이라도 하여 먹고 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 기뻐할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들됨을 믿어아 종처럼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와 살아갑니다. 또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고,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게 살수 있게 해주시는 총체적인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은 단번에, 위로부터, 은혜로 받은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과정이며 삶과 인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12:2).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자비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을 일관적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1:5; 15:18; 16:26).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고, 그의 자비가 원하는 바입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한 것이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권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들입니다. 놀라운 특권과 축복 아닙니까? 두려운 책임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자비의 강권을 받은 자발적이고 넘쳐나는 기쁨이 아니라, 애써서 하나님께 섬겨 드린 공로라면,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우리 마음을 편안케 하는 자기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늘 거함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던 생각과 오랫동안 익어왔던 옛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함을 받습니다. 생각과 습관, 사고방식과 태도, 인격과 인간 관계, 삶의 자리까지도 변화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나날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찬양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